

佛 기록보존소, 광주 5·18기록관서 '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특별전



5월단체 관계자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단죄를 조명하는 '콜라보라시옹' 전시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이어진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5·18 광주,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서 배운다

나치 협력 혐의 35만여명 조사  
당시 페탕 총리 사형 선고도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  
진실 남기려 부역자 자료 공개

했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광주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콜라보라시옹 (La Collaboration-협력)-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1940-1945' 특별전 개막식이 5·18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명 '콜라보라시옹'은 1940년 10월 30일 당시 프랑스 필리프 페탕 총리가 독일 히틀러 총통과 정상회담 후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 나는 협력의 길로 들어선다"고 한 선언에서 따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Archives Nationales)가 지난 2014년부터 해방된지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 대한 첫 전시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서울 전시회가 유일하다.

이번 광주 개막 배경에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5·18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를 특별히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장은 5·18 소개를 비롯한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크게 8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은 물론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한국과 달리 나치 부역자를 엄중하게 단죄한 프랑스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다.

1964년 프랑스는 전쟁 중 민간인에 저지

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 지난 1994년 유대인 처형에 관여한 폴 투비에는 종신형을, 지난 1998년에는 모피스 파퐁은 10년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니콜라스 우즐로 부소장은 "지난 2014년 프랑스 정부는 해방 70주년을 맞아 기록보존소에 보관 중인 나치부역자들의 자료를 공개하며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누구에게 책임 있고 누가 결정을 했는지 등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공개를 결정했고, 실제 전시가 열렸을 때 반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합세용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나치부역자 청산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전두환을 광주와 민족사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 또 '스쿨미투'... 교사 16명 수사 의뢰

성희롱 피해 학생 100명 될듯  
남교사 30% 대상...학사 차질

지난 9월 광주 모 사립여고에서 제기된<광주일보 2018년 9월 20일자 6면> 교사들의 성희롱·막말 의혹과 관련, 해당학교 교사들이 성희롱 혐의를 받고 무더기로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 모 사립고 교장 학생 성추행 사건, 광주 모 사립여고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건, 또 다른 사립여고 교간 교사 학생 성폭행 의혹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4개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광주 모 여고 교사 16명을 광주광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학교 전체 교사를 교사가 63명, 남교사가 3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사의 20%, 남교사의 30% 이상이 수사 대상이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께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받고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

과 경찰 협조를 받아 사물에 걸쳐 전교생 952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학생 진술서 분석작업을 거쳐 수사 의뢰 대상자 선별을 이날 마무리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현직 교사 15명, 전직 기간제 교사 1명이다. 여기에는 여교사 1명, 고3 담임 1명, 고3 비담임 1명이 포함됐다. 시교육청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는 피해 학생 규모는 100명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희롱성 발언이었다"며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과 분리되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7기관통보)가 교육청으로 오는 즉시 직위 해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이번 주중 피해자 조사에 착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조사는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며 이를 마치는대로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시간강사 강의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퇴직금 줘야"

법원이 대학법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퇴직 시간강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단기근로자로 여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강사들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양동학 판사)은 최근 P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2065만여원) 청구소송에서 법원측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학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씨는 해당 대학 교양학부에서 지난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시간강사로 일했다. 퇴직 후 대학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대학측이 1500만원을 P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받았으나, 대학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측은 "P씨의 경우 4주년을 평균했을 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허격! 고속도로 트럭서 철타핀 '우수수'

차량 19대 타이어 파손 피해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2t트럭에서 공사용 자재인 철타핀이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뒤따라던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19대가 피해를 봤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의 한 휴게소 인근 도로를 달리던 A(43)씨가 운전하던 2t 트럭 적재함에서 길이 5cm 가량의

공사용 철타핀 수십 개가 도로에 떨어졌다.

도로 곳곳에 날카로운 철타핀이 떨어지면서 뒤따라던 차량 19대가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

고속도로순찰대는 현장에 출동해 뒤늦게 철타핀이 도로에 떨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멈춰선 A씨를 붙잡았지만,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 차량을 보험처리 조치한 점을 확인하고 입건하지는 않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24일 첫 재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린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심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사례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

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충금을 목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성추행 역시 없었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KIA 연장전 패배에 격분 식당서 소동 피우다 경찰서행

○...만취한 40대가 자신이 응원하던 KIA타이거즈가 4시간 45분간의 연장전 끝에 패한 데 격분해 식당에서 소동을 피웠다 경찰서행

○...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7)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25분간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이날 박씨는 11화말 KIA 타이거즈가 롯데 자이언츠로부터 끝내기 안타를 얻어 맞고 역전패 당하자, 핫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KIA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 역전패를 당하자 순간 기분이 상해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